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7호 [루게 제24670호] 주제 103 (2014)년 9월 14일 (일요일)

당의 경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 618건설돌격대를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618건설돌격대를 성실성으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계조구상을 받들고 돌격대에 환원한 선교구역제과도매소 로동자 김은숙, 함흥시 동흥산구역산림경영소 로동자 김희옥,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자 리정희는 전투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도 앞장서고있다. 해주시 해운정로동직장관리위원회 로동자 최영복은 고산건설 전변을 안아오기 위하여 헌신하는 건설자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 주었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을 돕는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여기고 제신성 문서원 고은하는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돌격대원건설에 이바지하였다. 평성시상업관리소 로동자 안경숙은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맡겨진 혁명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고산과수농장건설자들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고있다. 철명아래 사과바다를 펼쳐는데 기여

할 일념안고 육류무역회사 통역원 정선화, 광장산호텔 로동자 리은영은 지성어린 후방물자들을 건설장에 보내주었다. 료해운성 신강 장천철, 평성제약합영회사 부원 서은주도 대규모과일생산기지건설에 함께 참가한 심정으로 돌격대원들을 힘껏 지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를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할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4돐과 조국해방 69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레바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도이쉴랜드공산당 위원장, 로트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위 위원장, 로트니아사회주의당 선례당 위원장, 공산당《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중앙위원회 위원장,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와 국제비서,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겸 국제비서,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에리트리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메히코로동당 전국지도자, 메히코사회주의인민당 중

앙위원회 위원장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또한 전변맹볼셰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가나인족민주대회 부총비서, 에리트리아사회주의당 부위원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을 비롯하여 레바논, 수리아, 파키스탄, 까자흐스탄, 이란, 도이쉴랜드, 로트니아, 로씨야, 벨라루시,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베닌, 메히코, 에파도르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소,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뜻깊은 8월의 날들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

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항일대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고 변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조선민족의 구세주, 태양이시라고 격찬하였다.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혁명명도로 나라와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억년기들을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선군결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만이 이룩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나의 생일 49돐에 즈음하여 따뜻한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면서 당신께서와 온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것과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수리아아랍인민의 투쟁을 지지해주고계시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4년 9월 9일 디마스끄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 노르웨이공산당 외스트폴드주 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장군 66돐에 즈음하여 노르웨이공산당 외스트폴드주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온 선물을 11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보루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동방에서 처음으로 인민민주주의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록 영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이지만 위대한 사상과 강대한 군사력,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 토대를 갖춘 강국으로 전변되었다.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영도자께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은 오늘 김정은원수께서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만마 미트 타르모출판사 총사장 마용 마용 나인은 9.9월 11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혁명적대고조로 당중앙을 옹위하는 돌격전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 해 주 잔 디 연구 소 훌륭히 건설



연구소에는 물동운반과 전 디 시험포전판에 필요한 물건과 장비를 다 갖추어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 일에 이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설비와 실험 기구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 주도록 하시는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새로 일떠선 잔디연구소는 앞으로 서해지구에서 사철 푸르면서 일이 부드럽고 생활력이 강한 새 품종의 잔디를 육성하여 도입일반화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잔디품종을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에 순화시키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게 된다. 얼마전 현지에서 준공식이 있었다. 준공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현대적인 잔디연구소의 내부와 외부를 돌아보았다. 잔디연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사랑과 은정에 높은 연구성과로 보답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일터마다에서 집단지적적인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화재제작과 수리에서 현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끝까지 관철할 결의에 넘쳐있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8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이달에 들어와서도 대고조전투장에서 결실히 필요한 화차들을 더 많이 생산할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도부문의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현대적인 잔디연구소의 내부와 외부를 돌아보았다. 잔디연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사랑과 은정에 높은 연구성과로 보답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준비를 빈틈없이

평안북도의 시, 군의 협동농장들에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준비를 다그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의 협동농장들에서는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준비에 역량을 집중하여 이미 4천여대의 트랙터와 1900여대의 탈곡기들의 수리정비를 끝냈으며 9월초까지 도적으로 2천여대의 이동식 벼탈곡기를 제작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도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시, 군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보내줄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 중 훈 찍음

#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 받들어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새 역사를 펼쳐시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시라》는 날이 갈수록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은 나라의 교육자들과 인민들이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 인재중시사상을 가슴벅차게 받아안으며 격정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조국애와 후대사랑에 전진의 보폭과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우리 당의 교육강국건설구상을 신념과 광심으로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 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 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환희롭고 가슴부풀게 하는 희망의 표제인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사회주의 교육강국.

사회주의경제강국과 문명국의 만년태도를 마련하게 하며 부강조국건설에서 비약을 이룩하게 하는 불멸의 교육대강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새 역사를 펼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자국을 가슴뜨겁게 향하여 쳐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재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되는 오늘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교육과 인재를 중시하고 교육전략, 인재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몇몇 인재들을 선발하여 키우고 그들에 의거하여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이룩

하려는데 국한되고 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가장 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주체적인 교육전략, 인재전략을 세우고 실현하는 나라는 세상에 우리 나라밖에 없다.

이것은 조국과 인민,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펼칠수 있고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에서만 실현할수 있는 교육전략, 인재전략이다.

은 나라에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에 새차게 타고오던 주제 102(2013)년 6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전진무장투쟁의 구호를 들고 전체 인민을 그 어떤 침략자도 물리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것처럼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인민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어느 교육자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국가지도자도 내놓지 못했던 우리 식의 인재전략을 제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리르며 일꾼들은 이룰수 없는 격정과 환희에 휩싸였다.

한번에 그렇지는 않았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사회주의 교육강국, 인재중시사상을 빛나게 계승하며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려는 끝없는 총성이 비껴가고 인민의 지향과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를 최상의 높이에서 구현하려는 숭고한 뜻이 어려웠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 인민모두를 숭고한 정신대덕성, 품모와 높은 과학기술지식, 고상한 문화적소양을 지닌 인재들로 키우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하루 빨리 경제강국, 문명국을 일떠세우려는 불타는 애국지와 천리해안

의 선전지령이 맥박치고 있었다. 어느 사건에서든 찾아볼수 없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말씀속에서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이 또 얼마나 뜨겁게 어려오는가.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책 등으로 모 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전민적 12년제의무교육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법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유지 원과 소학교, 소년단야영소와 소년궁전, 대학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뿌리가 든든하여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것처럼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여야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수 있다고 하시며 중등일반교육체제와 방법을 혁신하도록 혁명적조치들을 취해주시고 평양대학을 현지지도하시며 고등교육이 나아가길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소년단원들의 대회에도 몸소 참석하시어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천부라고 하시며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은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다.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며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제일 좋은것을 하루빨리 안겨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아이들의 구호가운데서는 《세상에 부럽없이라!》와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가 제일 좋다고 하시며 세계최상급의 소년단야영소로 일떠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교육자들을 위하여서는 아가솔들이 없다고 하시며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현대적으로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흙먼지가 날리는 살

림집건설장까지 몸소 나오시어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분도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후대들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금방성에 앉혀 온 세대가 부러워하게 내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라고 하시며 전사회적으로 교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게 하고 교육자들을 위하여 수많은 은정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온 나라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발걸음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었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중요대학에서 원격교육체제가 실현되고 교육내용이 최신과학기술과도 끊임없이 갱신되어나감에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이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안, 수업방법이 창조되고 발전되고있는것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함 정도가 결실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중시, 교육중시사상을 그대로 이시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인재들로 키우시고 우리 인민이 누구나 다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고 일상생활을 배울수 있는 훌륭한 교육체제와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어떻게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이다.

주제 103(2014)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축적개발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우리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구호를 들고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교육중시사상과 영도업적을 충직하게 받들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이 땅위에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칙의 의지이다.

이 철칙의 신념을 지니시고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불분불용의 사색과 헌신으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할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환히 밝혀주시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셨고 그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도 칭송할수 없겠는가.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로부터 시대가 요구하는 생형의 인재들을 원만히 키워낼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완비하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 학생들에게 숭고한 정신과 높은 창조력을 키워줄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할데 대한 문제, 나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혁신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교육사업을 중대한 국사로 내세우고 전당적, 전국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강하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로부터 교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문제,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밝혀준 위대한 교육대강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힘있게 다그쳐 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기치로 되었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시대이며 인재들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인재중시의 시대이다.

지식경제시대, 인재중시의 시대에 맞게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키며 우리 나라를 교육의 강국으로, 인재강국으로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영도가 있기에 우리 인민이 어떻게든 주체의 강성국가를 건설할수 있고 영원무궁한 창조와 번영의 서사시를 수놓아갈 것이다.

본사기자 정 선 철

## 혁 명 하 는 것

주제 103(2014)년 4월 어느날이었다.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여러곳을 오래동안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후대들이 비전 및정경건축물,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호텔이고 궁전이라고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에로와 난관이 있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우리가 1년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고, 이렇게 야영소를 개건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밋에 혁명을 한다고 뜨겁게

## 은 정 어 린

주제 103(2014)년 6월 어느날이었다.

강바람에 먼지가 흩날리는 현지에 나오시어 축적개발사업을 지도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자면 과학기술보급점이 있어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업적이 있었는데는 속심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과학기술을 보급하는 거점을 꾸리기로 결심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리시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과학기술발전이 달려있는것만큼 속심을 과학의 섬으로 전변시키는데 좋겠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 완 전 무 결 한

주제 102(2013)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풍풍 내거리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돌아보시었다.

살림집의 내부시공정형과 모든 세대에 놓아줄 가구제작형도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집들이를 할 과학자들에게 안겨줄 텔레비존수상기도 마련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완전무결한 살림집을 과학자들에게 남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 살 림 집 을

그러시고는 후대들을 키우고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환경을 바쳐가려 건설되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돌아보시었다. 살림집의 내부시공정형과 모든 세대에 놓아줄 가구제작형도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집들이를 할 과학자들에게 안겨줄 텔레비존수상기도 마련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완전무결한 살림집을 과학자들에게 남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은 후대들을 위하여 환경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금방성에 앉혀 온 세대가 부러워하게 내세워주시는 은혜로운 태양이시이다.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당이 바라는 기준에서 훌륭하게 개건된것만큼 마무리를 잘하여 이곳에서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전선길에 쌓이신 피로도 잊으신 듯 만면에 밝은 미소를 머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기쁨넘치는 모습을 우리르며 일꾼들은 원수님의 후대사랑이 얼마나 깊고 뜨거웠던가를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시었다.

## 과 학 의 섬

이께서는 계속하시어 속심에 건설하는 과학기술보급거점의 명칭을 과학기술전당이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과학기술전당을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이 완벽하게 반영된 건축물,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대학생들은 물론 전체 인민이 찾아와 마음껏 지식을 배우는 장소로 훌륭히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과학의 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도업적을 결정적으로 이어켜보게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찾아오게 조국의 미래를 환희롭게 안아보게 하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었다.

본사기자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김형직 사범대학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하시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수 있게 함으로써 전민교육의 성과적실현을 보장한다.》

전쟁의 포화속에 산란초목도 볼라던 주제 40(1951)년 1월 어느날이었다.

포원을 헤치시며 어느 한 공장에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장형편을 상세히 료해하시고 공장의 복구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며 노동자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피 주셨었다.

이날 전쟁의 후과로 관리일군들과 기술자들이 부족하다는것을 통찰한 이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민족간부들과 기술인재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사활적인 문제라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자제로 관리간부

## 포 화 속 에 서 래 여 난 대 학

들과 기술자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공장대학을 내오면 노동자들이 낮에는 공장에서 무기를 만들고 밤에는 학교에서 열 마든지 공부할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생산에서 리탈함이 없이 누구나 다 배울수 있고 훌륭한 기술자로 될수 있다고 하시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 보지 못했던 공장대학에 대하여 들으면서 일꾼들은 감격과 환희에 휩싸였다.

흥분과 격정에 넘쳐있는 일꾼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계속하시어 물론 전쟁을 하고있는 어려운 형편에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관리간부들과 기술인재들을 길러내야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으며 전쟁이 끝난 다음 파편

경제를 빨리 복구할수 있다고 일깨워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민족간부의 양성을 위하여 앞으로 전선에서 싸우는 전투원들을 일부 소환하여 대학에서 공부를 시키려 한다고 하시며 이 공장에서 일하던 동무들도 소환해주시는데 평양공업대학(당시)분교형식으로 일떠세울수 있는 대학을 내외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었다.

모든것을 전쟁승리에 동원하던 주제 40(1951)년 7월 15일 세계 그 어디에도 없었던 첫 공장대학이 창립되게 되었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 계획의 시원이 열리게 되었다.

어머이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의 포화속에서 태어난 첫 공장대학을 본보기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마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를 확대발전시키시며 수많은 근로자들을 사회

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유능한 인재들로 키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형명의 만년미래를 내다보시며 마련해주신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는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그 위력과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킬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다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고 일상생활을 배울수 있는 훌륭한 교육체제와 환경을 마련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의 세계적목표를 창조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영도가 있기에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후손대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 새 세 기 교 육 혁 명 의 목 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교육중시사상과 영도업적을 충직하게 받들고 주체혁명의 만년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부강조국건설에서 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혁명을 일으키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시라》에서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를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교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에서 큰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 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과 우리 인민들을 력사의 창조자, 시대의 선구자로 키우시고 세상에 제일 문명하게 해주실러 모든 사색과 실험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21세기 사회주의 교육강국건설의 우렁찬 피성을 울린 이 목표에는 가장 우월한 우리 사회주의 교육체제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시키고 교육사업을 전당적, 전국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강하게 밀고 나감으로써 우리 나라를 세계가 우러러보는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목표와 원대한 리상, 무비의 실천력이 빛날것이다.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

후대들을 어떻게 교육교양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국력과 혁명의 전도가 좌우된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교육의 사명은 교육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진행해나갈 때에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력사의 시대의 요구에 교육사업을 따라세우지 못하였던 나라와 민족들이 어떻게 쇠퇴의 길을 걸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교육사상 리론을 사회주의 교육건설의 지도적 지침으로 틀어쥐고 지식경제시대, 인재중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를 근본적으로 일신시켜 우리 인민모두를 숭고한 정신과 높은 창조력을 가진 인재들로 키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립없는 의지이다.

이 철칙의 의지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풍부한 지식과 높은 창조적능력, 고상한 도덕품모와 건장한 체력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들로 키우는데 대한 웅대한 구상에도 어려웠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다 고등교육을 받고 일상생활을 배울수 있는 훌륭한 교육체제와 환경을 마련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할데 대한 위대한 설계에도 맥박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와 그 실현방도들을 받아안고 21세기 사회주의 교육강국의 앞길

을 환히 그려보는 우리 교육자들과 인민들의 가슴은 감격과 환희로 출렁이고 있다.

모든 청소년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들로 키우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교육강국을 만든다는 야망강사와 황금만능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꿈도 꿀수 없고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인민을 제일 귀중히 여기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풍부하게 하는 우리 당만이 제시할수 있는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목표이며 국가가 자라나는 새 세대들과 인민들모두를 책임지고 공부시켜주는 우리 나라에서만 내놓을수 있는 통이 큰 목표이다.

그것은 또한 물질적부를 자랑하는 나라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전민적 12년제의무교육체제를 실시하고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수많은 인민의 대학들과 일하면서 배우는 우월한 고등교육체제를 비롯하여 교육의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춘 우리 나라에서만 내놓을수 있는 가장 현실성있는 목표이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 교육강국으로 만들어 우리 혁명과 지식경제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가장 빨리, 가장 완벽하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목표이다.

인재에 의하여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기술혁신이 지식경제의 핵심적동력으로 되고있는 오늘 인재문제는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21세기는 교육의 세기라고 하면 새 교육사업을 개선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국책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는것도 지식경제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광범한 근로대중을 배척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일면적인 지배는 야망강사와 황금만능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꿈도 꿀수 없고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인민을 제일 귀중히 여기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풍부하게 하는 우리 당만이 제시할수 있는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목표이며 국가가 자라나는 새 세대들과 인민들모두를 책임지고 공부시켜주는 우리 나라에서만 내놓을수 있는 통이 큰 목표이다.

그것은 또한 물질적부를 자랑하는 나라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전민적 12년제의무교육체제를 실시하고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수많은 인민의 대학들과 일하면서 배우는 우월한 고등교육체제를 비롯하여 교육의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춘 우리 나라에서만 내놓을수 있는 가장 현실성있는 목표이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 교육강국으로 만들어 우리 혁명과 지식경제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가장 빨리, 가장 완벽하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목표이다.

인재에 의하여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기술혁신이 지식경제의 핵심적동력으로 되고있는 오늘 인재문제는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 영 용 도 박사 도 교 원 들 이 키 운 다 고 하 시 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원들을 고치시며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하여야 그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열정을 가지고 후대교육사업에 한생을 바쳐 일할수 있습니다.》

주제 94(2005)년 6월 어느날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교육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교원들을 그 어떤 적위나 명예도 바라지 않고 오직 후대들을 나라와 민족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목숨까지 바쳐가고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들가운데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강철의 어려움보다 조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면

서 변함없이 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바쳐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다 애국자들과 할수 있다고, 교원들은 마땅히 사회적으로 내세워주고 우대해주어야 한다고 이리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교원들을 내세워주고 우대해주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원들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사업을 하고있다고, 교원들이 교육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사회주의도 지킬수 없고 강성국가도 건설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교원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우대하여주어야 한다고, 무엇보다도 교원들을

적극 내세워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원들은 직업적인 혁명가이고 고마운 스승들이라고, 영웅도 박사도 교원들이 키워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교원들을 직업적인 혁명가로 내세워주시고 새 세대들을 키우는 교육의 남다른 노력과 수고, 그들의 생활상 고초까지 속속들이 헤아려주시며 뜨거운 은정을 내려주시는 교원들의 친근한 스승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교원들을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를 실현하는 투쟁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고 계신다.

본사기자



실습을 통하여 현실에서 써먹을수 있는 상식적 리론을 배워간다. -이 피터도도관리교원들이 학생들에게서

본사기자 리 진 명





# 온 나라 료양소들에 넘치는 인민의 웃음소리

산 좋고 물 맑아 예로부터 삼천 리금강산으로 불리워온 우리 나라에는 사회주의선경을 노래하는 마을들이 많다. 그 맛과 향기가 감미로운 과일들이 가지가 휘도록 집집의 나무마다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다.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다. 당의 맛은 온정이 깃든 삶의 보람에서 행복을 뜻하며 오곡백과를 마음껏 가꾸어가는 기쁨이 넘쳐있는 제대군인마을, 온정마을도 있다. 그중에는 사시절 인민의 웃음소리 그칠새 없이 울려나오는 온천마을도 있다. 경성 온천마을, 황진 온천마을, 갈산 온천마을... 그 이름들을 하나둘 표기해놓으면 그대로 조선지도가 되리만큼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건건이 좋은 땅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있을뿐 아니라 땅결면의 넓이에 비해 그 수가 하도 많아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더욱 자아내고있다. 여기에는 온 나라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평생 불멸의 로고를 바쳐 온 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크나큰 업적이 뜨겁게 들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천과 약수를 병치리에 널리 이용하려면 관광탐사사업을 잘하여 온천과 약수를 더 많이 찾아내야 합니다.》** 땅은 고대시기부터 사람들에게 기적을 낳는 힘의 원천으로

알려져왔다.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각종 광물이 용해되어있는 온천과 약수를 신성시 했으므로, 신비한 힘의 근원으로 생각했다. 온천에 의한 치료는 고조선시기와 고구려를 비롯한 세나라시기를 거쳐 고려시기에 와서 더 많이 진행되었다. 고유한 특효를 가진 우리 나라의 온천과 약수들의 이름은 중세기에 벌써 이웃나라들에까지 널리 알려져서 되었다고도 알려져있다. 이르러 전국의 곳곳에서 땅굴개발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광천치료자원의 개발력사 수천년을 헤아리고 근대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광천치료학문이 개척된지도 수백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조국해방 당시 우리 아버지가수령님께서는 주체 4 2 (1953)년 6월 일요일 보전 온천, 약수자원을 적극 탐사하여 료양소를 꾸리는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리고 현대적으로 꾸려진 전국의 여러 료양소들을 돌아보시며 그 관리운영정형에 대해 알아보시고 더 많은 광천자원을 개발리용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

인 문제들도 헤아려주시었다. 류례없이 간고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돌파한 우리 조국앞에 보다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과업들이 많이 나서고있던 새 세기에 나라의 광천자원을 더 많이 찾아내어 우리 인민들이 의로봉사의 해례를 위한바람에 자량한 성과속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가 가슴깊이 새겨졌다. 일찍이 현지지도의 길에서 해당 지역의 광천을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조치로 취해주시고 보편적으로 있는 내륙온천 료양소의 료양생들을 위해 기차까지도 돌리도록 하시던 그 사랑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세기에 료양소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여러차례나 주시었다. 이렇듯 해빛같이 따사로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받들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광천자원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 나라의 광천 총 지대수는 170여개이며 그 중 온천은 60여개, 약수는 110여개이다. 온천형성에 유리한 지질학적 조건을 갖추고는 우리 나라의 광천은 다른 나라 광천들에 비하여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년중 거의나 광천의 온도변화가 없을뿐 아니라 사람들의 몸에 유익한 미량원소들의

조성이 알맞았것으로 하여 치료효과가 매우 큰것이다. 우리 나라 광천은 또한 다른 나라 광천들의 분포상태와 비교해볼 때 전국의 곳곳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있는것이 특징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전국적인 광천의 50%가 어느 한 도시에 집중되어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에서는 비록 전국에 골고루 널려져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부분 온천 또는 약수만으로 되어있다. 그 물리적 및 화학적특성의 다양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광천은 소화가계통, 신경계통, 비뇨기계통, 심장관계통, 산부인과계통질환 등을 비롯하여 질병치료의 폭이 넓은 우점을 가지고있다. 비단우에 꽃이라고 한쪽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광천지대들은 료양소들이 현대적으로 일떠서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건강속료양소와 달천형에군인 료양소를 비롯하여 여러곳에는 가정적분위기속에서 의로봉사를 받을수 있게 특색있는 속소까지 훌륭히 꾸려져있다. 담당의료진들과의 편제밑에 해당 질병치료에 맞는 료양소를 찾아와 친밀한 료양의로봉사를 무상으로 받고있으니 그 이익기쁨의 노래, 행복의 노래가 료양생들의 가슴마다에서 절로 흘러나오지 않을수가 없으리다. 남이 갈수록 광천의 치료효능이 더 많이 밝혀짐에 따라 광천 치료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오늘 더욱 늘어나고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에서나 광천은 의연히 돈많은 사람들의 향유물로 되고있다. 지난날 날이 다 온천이나 약수에 한변 가볼 생각조차 못하고 죽어야만 했던, 자기 고장에서 생색을 광천을 보며 기쁨의 미소를 짓기에 앞서 착취계급의 시달림이 두려워 울며 그것을 물어버려야만 했던것이 우리 인민의 운명이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인민은 나라의 광천자원을 마음껏 리용하며 청춘의 활력을 자랑하고 사회주의문명의 향유자의 기쁨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진정한 열사들을 모아서 오랜 세월 덧없이 흘러가버리던 이 땅의 온천과 약수들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한껏 퍼주어 줄 것이 생색아오르는데 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과 함께 내 나라 그 어디에서나 사람의 온천과 약수들은 더 많이 솟아오르려니 그와 더불어 늘어난 광천의 온천마을들과 약수마을들은 세세년년 길이 노래하리라. 사람도 산천도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 로동당시대를 잘 만나 세상에 더욱 빛을 뿌리는것이고. 고귀한 그 력사의 진리를 길이 전해가도록 전국적 료양소들에서는 초가을에 접어들어 계절에도 료양생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그칠새 모르고 고요한 산천을 흔들며 저 멀리로 메아리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방경찬

## 내 조국에 대한 함성이 동지를 달아 보내어왔다.

이 땅 어디서나 날로 번영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 대한 찬없는 긍지로 충만한 신념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 전국각지의 수많은 독자들이 본사편지국으로 보내어오는 글작품들을 통해서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서 분출되는 그 승고한 사상감정이 얼마나 열렬한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키워오시고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온 위대한 혁명적인민이며 우리 나라의 인적정기와 우리 나라의 인적정기를 대내외에서 고상한 사상적정신으로 지니 출중한 인민이다.》** 동대원구역에서 사는 박은복동무는 강성 국가의 휘황한 앞날을 펼쳐주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그 마음을 담은 가사 **《만수대년덕으로 오는 한마음》** 을 보내어왔다.

## 보내여온 글작품들을 보고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서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에 부강번영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는 공화국의 격동적인 현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끝없는 서정의 세계를 안겨주고있으니 천마군에서 사는 서영선동무가 쓴 가사 **《온 나라가 일떠서네》** 는 또 얼마나 격조높은것인가.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키워오시고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온 위대한 혁명적인민이며 우리 나라의 인적정기와 우리 나라의 인적정기를 대내외에서 고상한 사상적정신으로 지니 출중한 인민이다.》** 동대원구역에서 사는 박은복동무는 강성 국가의 휘황한 앞날을 펼쳐주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그 마음을 담은 가사 **《만수대년덕으로 오는 한마음》** 을 보내어왔다.

이 하나의 생활장르로 되어있었으며 오락이나 경기도 무술놀이를 기본으로 하였다. 미천한 달이 사냥경이든 우승하고 왕의 사위까지 되었으며 그후 조국방위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잘 말해주고있는바와 같이 고구려에서는 판리들을 등용하고 평가하는데서 군사적자질이 중요시되었다. 고구려에서는 인민들의 굳은 로동과 창조적체로 하여 농업과 수공업, 목축업 등 경제의 많은 부분이 발전하였다. 고구려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문화를 창조하였다. 고구려에서 천문학의 발전은 《석각천문도》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오늘날까지 전해져내려오는 《천상명차본야지》는 바로 고구려의 《석각천문도》를 리용하여 만든것으로서 고구려의 발전된 천문학을 상징해준다. 또한 5~6세기 고구려왕국인 안학공의 중흥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목조건축의 하나로써 고구려의 뛰어난 건축술을 대외적으로 알렸던것이었다. 이밖에 고구려의 학과 제강, 금속공업, 요업기술 등도 당시로서는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회화, 공예를 비롯한 미술의 여러 분야도 높은 수준에 있었다. 고구려인민들은 고조선인민들의 미용관습을 계승발전시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용관습의 본질을 마련하였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구려벽화무덤들은 당시 고구려의 높은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축도이다. 고구려의 선진적인 사회경제제도와 정치제도, 군사제도, 발전된 문화는 백제, 신라를 비롯한 동쪽의 나라들과 주변나라들, 후세 우리 나라 봉건국가들의 성립과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고구려는 건국초부터 민족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하여 출중한 투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 고구려는 6세기초에는 삼국통일의 지남을 튼튼히 닦아놓았으며 넓은 강토를 가진 강대국으로 되었다. 고구려는 시종일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고 빛내어왔다. 고구려는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수심차체의 반란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6세기말부터 수심-수백만에 달하는 침략군의 립속되는 침공에 파견이 맞서 맞서는 승리를 이룩하고 나라의 강대성을 널리 시위하였다. 천하의 유일무이한 황제로 자처하면서 주변나라들을 속속으로 모인 어느 한 나라의 통치자도 고구려에 대해서만은 그의 대국적지위를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 이처럼 고구려는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근 천년이나 존재하면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것으로 하여 그 이름도 자랑스럽고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김명일



도시의 문화정서적풍치를 더해주는 만경대구역화조원 본사기자 리학락 찍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시와 농촌의 주민지구와 철길주변, 공원들에는 잔디를 비롯한 지표식물을 많이 심어 생명이 보이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잔디녹병은 녹균에 의해 발생한다. 증상은 초기에 잎에 노란색의 반점이 생기면서 나타난다. 이 병에 심하게 감염된 잔디들은 철이 녹슨것과 같은 색을 띤다. 이런것으로 하여 이 병을 녹병이라고 한다. 감염된 잎들을 손으로 문지르면 불그스름한 색의 가루가 묻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녹균의 포자이다. 잔디녹병은 늦여름 혹은 초가을에 왕게미풀과 호밀풀류에서 영양상태가 약하고 습도가 높을 때 발생한다. 특히 한나루, 노가지나무주변의 왕게미풀과 호밀풀류를 심은 밭에서 많이 발생한다. 잔디녹병을 예방하려면 잔디밭을 2~3회 물로 0.5%로 살포하고 노소비료를 물로 0.5%로 살포하여 준다. 다음으로 보르도액을 리용하여 구제할수 있다. 잔디녹병이 발생하였을 때 0.2~0.3% 석회농도는 보르도액을 250ml/㎡씩 3일간격으로 3회 살포하고 노소비료를 물로 0.5%로 살포하여 준다. 만약 잔디밭에 보르도액의 농도를 조절하여 사용할수 있다. 보르도액은 제조후 2시간안으로 써야 하며 부단히 저어 주어 농도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내린 후 습기가 많을 때, 잎에 물기가 있을 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기온도가 25°C 이상일 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자연과학연구소 연구사 김명일

잔디녹병을 예방구제하자면

잔디밭에 보르도액의 농도를 조절하여 사용할수 있다. 보르도액은 제조후 2시간안으로 써야 하며 부단히 저어 주어 농도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내린 후 습기가 많을 때, 잎에 물기가 있을 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기온도가 25°C 이상일 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자연과학연구소 연구사 김명일

잔디밭에 보르도액의 농도를 조절하여 사용할수 있다. 보르도액은 제조후 2시간안으로 써야 하며 부단히 저어 주어 농도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내린 후 습기가 많을 때, 잎에 물기가 있을 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기온도가 25°C 이상일 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자연과학연구소 연구사 김명일

잔디밭에 보르도액의 농도를 조절하여 사용할수 있다. 보르도액은 제조후 2시간안으로 써야 하며 부단히 저어 주어 농도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내린 후 습기가 많을 때, 잎에 물기가 있을 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기온도가 25°C 이상일 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자연과학연구소 연구사 김명일

## 전년강국으로 자랑놀았던 고구려

고구려는 시종일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고 빛내어왔다. 고구려는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수심차체의 반란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6세기말부터 수심-수백만에 달하는 침략군의 립속되는 침공에 파견이 맞서 맞서는 승리를 이룩하고 나라의 강대성을 널리 시위하였다. 천하의 유일무이한 황제로 자처하면서 주변나라들을 속속으로 모인 어느 한 나라의 통치자도 고구려에 대해서만은 그의 대국적지위를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 이처럼 고구려는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근 천년이나 존재하면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것으로 하여 그 이름도 자랑스럽고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김명일

고구려는 시종일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고 빛내어왔다. 고구려는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수심차체의 반란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6세기말부터 수심-수백만에 달하는 침략군의 립속되는 침공에 파견이 맞서 맞서는 승리를 이룩하고 나라의 강대성을 널리 시위하였다. 천하의 유일무이한 황제로 자처하면서 주변나라들을 속속으로 모인 어느 한 나라의 통치자도 고구려에 대해서만은 그의 대국적지위를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 이처럼 고구려는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근 천년이나 존재하면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것으로 하여 그 이름도 자랑스럽고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김명일

고구려는 시종일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고 빛내어왔다. 고구려는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수심차체의 반란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6세기말부터 수심-수백만에 달하는 침략군의 립속되는 침공에 파견이 맞서 맞서는 승리를 이룩하고 나라의 강대성을 널리 시위하였다. 천하의 유일무이한 황제로 자처하면서 주변나라들을 속속으로 모인 어느 한 나라의 통치자도 고구려에 대해서만은 그의 대국적지위를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 이처럼 고구려는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근 천년이나 존재하면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것으로 하여 그 이름도 자랑스럽고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김명일

고구려는 시종일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고 빛내어왔다. 고구려는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수심차체의 반란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6세기말부터 수심-수백만에 달하는 침략군의 립속되는 침공에 파견이 맞서 맞서는 승리를 이룩하고 나라의 강대성을 널리 시위하였다. 천하의 유일무이한 황제로 자처하면서 주변나라들을 속속으로 모인 어느 한 나라의 통치자도 고구려에 대해서만은 그의 대국적지위를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 이처럼 고구려는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근 천년이나 존재하면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것으로 하여 그 이름도 자랑스럽고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김명일

천연약물개발이 세계적인 추세 되고있는 오늘 우리 나라의 풍부한 바다자원을 리용하여 천연강식품이나 약물을 적극 개발하는것은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향상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바다나물의 여러 가지 약리작용과 그 조성물질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는 과정에 주목이 돌려진것의 하나가 다시마 미역 등에 포함되어있는 류산다당이다. 류산다당이란 류산가가 결합된 다당을 말한다. 바다나물에는 여러가지 류산다당이 포함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마나 미역과 같은것에 들어있는 류산다당을 일반적으로 푸코이단이라고 한다. 다시마나 미역의 표면에는 공룡적으로 끈적끈적한 물질이 있는데 그 주성분이 바로 푸코이단이다. 푸코이단은 구조가 헤파린과 유사하다는데로부터 그의 약리작용과 관련한 연구가 심화되었으며 결과 다양한 기능을 나타낸다는것이 밝혀졌다. 푸코이단은 피속의 기름질함량을 낮추는 작용을 하여 피순환이

잘되게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막는다. 또한 푸코이단은 그자체가 항산화활성을 나타내뿐 아니라 생체내에서 항산화효소의 활성을 높여 기름질의 산화를 막는다. 이러한 작용으로부터 푸코이단은 혈전성질환의 예방치료로서 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푸코이단은 당뇨병에 대한 치료 효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푸코이단은 무작용이 전혀 없는 천연리활성물질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있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있다. 문성규 동무는 비롯한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자들은 여러해동안 우리 나라의 바다에 풍부한 다시마로부터 푸코이단을 분리하고 그의 약리작용을 밝혀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혈전성질환치료에 특효가 있고 당뇨병, 암치료 등에 효과가 좋은 건강식품을 《푸코이단》을 개발하였다. 《푸코이단》은 고지혈증, 암, 당뇨병 등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준다. 연구자들은 최근에 천연류산다당인 푸코이단을 리용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주름 방지효과를 나타내는 보습성 물질도 개발하였다. 이들의 연구성과는 특허로 등록되었으며 전국 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환경보호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존층은 평면에서 20~30km 높이에 있는 오존농도가 가장 높은 대기층을 말한다.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만일 이러한 오존층이 없으면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강한 자외선이 직접 지구표면에 도달하여 사람에게서 피부암과 백내장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며 생명의 유전과면역계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부터 세계는 지구의 생태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1985년 오존층보호에 관한 원협약을 채택하고 오존층과 관련된 활동을 규제하였고 1987년 《몬트리올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1990년에는 10여종의 오존층과 관련된 국제조약들이

추가하고 2005년까지 그 생산을 전면폐지할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대기 중에 있는 오존층과피해물질은 줄어들지 않고있으며 이것은 사람들에게 심한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자외선의 영향이 아직도 오존층과피해물질은 내보내는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리용되고있으며 그로 인하여 해마다 수천명의 사람이 오존층과피해물질인 피부암 등으로 사망하고있고 어린이들속에서 발생하는 등 오존층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지구의 오존층을 보호하는 문제는 한두세대나 어느 개별적인 나라들이 노력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모든 나라들이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응당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유엔은 올해 9월 16일 《국제오존층보호의 날》 주제를 《오존층보호, 이 사업은 계속된다》로 정하고 모든 나라, 민족이 오존층보호사업에 계속 동참하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이 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오존층 보호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대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주체 75(1986)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을 채택한데 이어 2012년과 2013년에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오존층과피해물질과 그것이 들어있는 설비나 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 리용을 극력 줄이도록 목적으로 하는 법과 규정도 제정하였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오존층과피해물질과 관련된 대용기술도입을 장려하는 등 오존층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오존층보호의 날》을 맞으며 여러가지 행사들을 진행하여 사람들속에 오존층보호사업의 중요성과 그 의의에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고 있다. 우리는 자연보호, 환경보호 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오존층보호를 비롯한 환경보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조선자연보호령 중앙위원회 주송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경축 조로우표수집전시회 개막

조선우표에 호가동맹과 로씨야민족우표수집아카데미가 공동주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경축 조로우표수집전시회가 개막되었다. 개막식이 13일 조선우표박물관에서 있었다. 기념경 조선우표에 호가동맹위원장, 조선로씨야친선협회위원장인 김진현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시내 근로자들과 우표수집가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안드레이 스트리킨 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민족우표수집아카데미대표단 성원들, 알렉산드르 페도트 주조 로씨야민방 특별전담대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전시회에 참가한 조로 두 나라 우표수집가들과 단체들에 상장과 메달, 참가증, 로씨야민족우표수집아카데미의 명예성원증서가 수여되었다.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전통적인 조로친선의 분위기

가 날로 고조되고있는 속에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두 나라 인민들이 서로의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잘 알수 있게 하고 친선과 협조의 뉴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연설자들은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는 우표발행기관들과 우표수집단체들이야의 대방면적인 협조와 교류를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해 기대를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가 날로 고조되고있는 속에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두 나라 인민들이 서로의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잘 알수 있게 하고 친선과 협조의 뉴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연설자들은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는 우표발행기관들과 우표수집단체들이야의 대방면적인 협조와 교류를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해 기대를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다음주에 진행될 청년선수권대회 경기들

15일부터 체조, 수구경기가 평양에서 있게 된다. 사격경기는 16일부터, 활쏘

경기기는 17일부터 압록강구락체육단에서 벌어지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 대결흥심을 가리우기 위한 《신뢰구축》론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사이의 그 무슨 《신뢰》에 대해 끝날 운운하고있다. 얼마 전에도 남조선집권자는 《민생, 문화의 통로》를 열자면 《신뢰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떠들었다. 피괴괴위당국자들속에서도 《신뢰구축이 우선》이라느니 뭐니 하는 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북남사이에 신뢰와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은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하다면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위대는 《신뢰》라는것이 과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것인지.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남조선피괴들의 《신뢰구축》론이 그들의 대결정세를 합리화하고 반동일책들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꾀변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의 《신뢰구축》론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기 위한 방패막이다.

북남사이의 신뢰구축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신뢰가 구축되는 법이다.

그러나 대화와 협력을 대하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는 말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우리는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국면을 열기 위하여 노력하는 노력을 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옹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처사때문이다.

올해 초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 국방위원회 의 중대제안이 발표되었을 때만 보아도 그렇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나왔어야 하였다. 그

러나 피괴괴들은 《진정성없는 제안》이라느니, 《신뢰성이 떨어진다.》느니 하는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면서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역사적인 7. 4 공동성명 발표기념일을 계기로 대화의 문을 열려던 우리의 제안도 그 무슨 《위장평화공세》나, 《화전량면전술》이니 하고 시비질하며 외면한 피괴들의 망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다.

지금 피괴들이 《대화》라느니 뭐니 하고 떠벌이면서 마치도 저들이 대화에 관심이 있는듯이 생색을 내고있지만 그것은 대화 파피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술책이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기초는 역사적인 7. 4 공동성명과 6. 15 공동선언, 10. 4 선언이다.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이 역사적인 합의들을 존중하고 리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아무리 《신뢰구축》을 떠벌어도 북남대화와 협력을 거부해는 죄악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피괴들의 《신뢰구축》론은 북남관계의 파국상태를 언제까지나 지속시키려는 악랄한 반동일책이다.

피괴들은 《작은것부터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드레퓔선언》이니, 《평화공화국조약》이니 하는것들을 내뽐고있다. 하지만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절정에 달한 지금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것이다.

북남사이의 뿌리깊은 불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저것을 자꾸 내뽐는것이 아니라 이 마르면 북남합의들을 리행하여 정지 군사적대결상태부터 해소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당국에 비방중상의

중지, 미국과의 북한전쟁연습의 종식을 비롯하여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괴들은 중 남북의 우등 《작은 협력》나발을 지껄어 불어대면서 우리의 제안을 대해서는 모르쇠를 하고있다. 결국 그들이 떠벌이는 《신뢰구축》이란 본질에 있어서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대결상태를 고착시키기 위한 불순한 요설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5. 24조치》해제와 금강산관광개개가 각계의 야수 제기되고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이 실질적인 문제는 외면하면서 양정같은 수작을 늘어놓고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이 각계층이 일치하게 요구하는 《5. 24조치》의 해제와 금강산관광개개를 부당한 조건을 내세우며 강행한 대규모적인 《음식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조진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킨 위험천만한 핵시합정행이었다. 보도원반과 같이 호전행정은 이 연습에서 처음으로 《핵선제타격각본인 《맞출필적정전》》을 적용하면서 일축적발의 긴장상태를 조성하였다.

피괴들이 우리의 평화애호노력에 한사코 도전하면서 지난 8월 미국과 야합하여 강행한 대규모적인 《음식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조진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킨 위험천만한 핵시합정행이었다. 보도원반과 같이 호전행정은 이 연습에서 처음으로 《핵선제타격각본인 《맞출필적정전》》을 적용하면서 일축적발의 긴장상태를 조성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아무리 《신뢰구축》이니 뭐니 하며 여론을 오도해도 저들의 대결적정세를 가라앉힐수 없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고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격화시키면서 북침전쟁의 불기운을 몰아오는 피괴괴들의 《신뢰구축》론은 온 민족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다.

피괴들은 기간적인 《신뢰구축》타령이나 늘어놓을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대결정태부터 철회하여야 한다. 이는 정철

수리》합동군사연습을 광범적으로 벌여 놓은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자체력과 야망을 발휘하여 들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중단없이 추진시켰다. 그것은 민족분열로 인한 기체의 불행행을 진정으로 가슴아파하고 북남관계의 진도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발현이었다.

그러나 피괴들은 《그런 메일수록 대북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북남사이의 적대적분위기를 더욱 고취하였다. 지어 집권까지 나서서 《어떤 대화도 신뢰정도로 인도태세가 약하면 실현할수 없다.》고 떠들었다가 하면 해외에 나가서도 《남북한 신뢰의 토대는 굳건한 안보》라고 기업을 토하였다.

피괴들이 우리의 평화애호노력에 한사코 도전하면서 지난 8월 미국과 야합하여 강행한 대규모적인 《음식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조진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킨 위험천만한 핵시합정행이었다. 보도원반과 같이 호전행정은 이 연습에서 처음으로 《핵선제타격각본인 《맞출필적정전》》을 적용하면서 일축적발의 긴장상태를 조성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아무리 《신뢰구축》이니 뭐니 하며 여론을 오도해도 저들의 대결적정세를 가라앉힐수 없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고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격화시키면서 북침전쟁의 불기운을 몰아오는 피괴괴들의 《신뢰구축》론은 온 민족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다.

피괴들은 기간적인 《신뢰구축》타령이나 늘어놓을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대결정태부터 철회하여야 한다. 이는 정철

## 여러 나라 신문 글 게재 불패의 사회주의강국

공화국창건 66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2일과 5일 기념 글을 게재하였다. 내발신문 《내팔 투데이》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인 1948년 9월 9일 조진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다. 창건 후 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성장하였다. 공화국의 창건자인 김일성주석께서는 공화국을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셨다.

주석의 위업을 이어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다시 세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패성은 지난 세기 말엽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몇가지 사실들만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패성은 지난 세기 말엽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몇가지 사실들만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여러 나라 신문 글 게재  
불패의 사회주의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패성은 지난 세기 말엽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몇가지 사실들만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패성은 지난 세기 말엽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몇가지 사실들만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여러 나라 신문 글 게재  
불패의 사회주의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패성은 지난 세기 말엽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몇가지 사실들만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패성은 지난 세기 말엽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몇가지 사실들만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 주체의 영원한 대양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원리 내발 지지회 위원장인 내발신문 《아르칸》 책임주필 만주 라프나 사가 야가 8월 22일 《김일성주석은 주체의 영원한 대양》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인류역사에 김일성주석처럼 위대한 인간은 일찍이 없었다. 김일성주석은 위인으로서 지나야 할 폭풍과 자질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결출한 사상리론과 혁명행령으로 20세기를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철학자, 정치가, 군사전략가이시다.

그이는 위대한 사상과 업적, 고매한 덕망으로 하여 인류의 심장에 영생하시는

주체의 영원한 대양

김일성주석은 조진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사회주의의 승리의 시조이시니 조진인민군을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신 강철의 평양시장이시다.

그이의 평도말에 조진인민군은 당과 수령의 군대, 진정한 인민의 군대, 정치사상적품모를 갖춘 혁명군대로 되었다.

조선인민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도하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책의 기초로, 출발점으로 되신 군사정치사상과 로선을 내놓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류사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 외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레오와의 전면전쟁을 벌일것이라고 언명

이란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7일 상봉식상에서 외세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이란인민은 지난 30여년동안 적들의 압력과 위협, 제재에 굴하지 않았음을 언제나 자랑으로 여기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가 앞으로 미국과 서방의 계속되는 제재에 맞서나갈것이며 경제문제들을 해결하고 전방발전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같은 날 이란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한 회견에서 자기 나라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레오와의 전면전쟁을 벌일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은 테오와 협력행위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으며 앞으로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로 발휘하여 지역의 안전을 수호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교통안전보장조치, 비행행위위험률 감소, 싱가포르에서 교통안전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8월 이 나라 국회가 채택한 교통안전법안에 의하면 차를 몰면서 손전화기와 기타 이동통신기계를 사용하는 운전사들에 대해 엄격한 법적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이것은 차를 몰면서 손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운전사들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를 4.9배 더 높이는 것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라고 한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도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8월 이 나라 정부는 국회에서 인터넷, 전화 등 통신망을 통한 도박행위를 비합법화할데 관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박행위를 조장시키던 비법적인 인터넷 웹사이트들과 운영시설들이 폐쇄되며 범위반자들에게 대한 엄격한 처벌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한다.

기피수출 증가 월남에서 올해 첫 8개월동안

교통안전보장조치, 비행행위위험률 감소, 싱가포르에서 교통안전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8월 이 나라 국회가 채택한 교통안전법안에 의하면 차를 몰면서 손전화기와 기타 이동통신기계를 사용하는 운전사들에 대해 엄격한 법적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이것은 차를 몰면서 손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운전사들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를 4.9배 더 높이는 것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라고 한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도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8월 이 나라 정부는 국회에서 인터넷, 전화 등 통신망을 통한 도박행위를 비합법화할데 관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박행위를 조장시키던 비법적인 인터넷 웹사이트들과 운영시설들이 폐쇄되며 범위반자들에게 대한 엄격한 처벌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한다.

기피수출 증가 월남에서 올해 첫 8개월동안

교통안전보장조치, 비행행위위험률 감소, 싱가포르에서 교통안전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8월 이 나라 국회가 채택한 교통안전법안에 의하면 차를 몰면서 손전화기와 기타 이동통신기계를 사용하는 운전사들에 대해 엄격한 법적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이것은 차를 몰면서 손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운전사들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를 4.9배 더 높이는 것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라고 한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도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8월 이 나라 정부는 국회에서 인터넷, 전화 등 통신망을 통한 도박행위를 비합법화할데 관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박행위를 조장시키던 비법적인 인터넷 웹사이트들과 운영시설들이 폐쇄되며 범위반자들에게 대한 엄격한 처벌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한다.

기피수출 증가 월남에서 올해 첫 8개월동안

## 단 평 유 치 한 놀 음

미국이 에블라비루스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최근 대통령 오바마가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에블라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병력을 동원하겠다고 언명하였다. 에블라비루스가 케일 퍼디안드 돌연이가 일어나 전염성이 커질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것이라는것이 그 이유이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데 의하면 지금까지 서아프리카 몇개 나라에서만도 에블라비루스로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감염되었다.

무섭게 파급되는 에블라비루스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미국이 동참한다면 대형스러운 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병주고 약주는 식의 유치한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20세기 흑사병으로 알려진 에이즈와 마찬가지로 에블라비루스도 미국이 수십년전부터 생물무기기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를 해오는 과정에 무서운 전염병으로 되었다.

세계 여러 지역으로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플지거리 에블라비루스의 전파자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에블라비루스의 전파방지에 관심이라고는 아니나 생색을 내지만 미국사까지 전쟁행동에 약용하고있는 저들의 극악한 범죄적정세를 감출수 없다.

미국이 에블라비루스의 전파를 막는데 진짜로 관심이 있다면 침략전쟁을 강행하기 위한 생물무기연구나 중지해야 할것이다.

리 현 도

## 나토의 접근에 대응할데 대해 강조

로씨야부상 드미트리 로고진이 8월 27일 나토의 접근에 대응하여 케도그루배방설을 다그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나토의 군사시설들이 로씨야군에 향해 계속 접근해오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러한

## 가자지대에 대한 봉쇄를 끝낼것을 요구

노르웨이부상이 8월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봉쇄를 끝낼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하였다.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으로 가자지대의 살상행위와 학부구조들이 흑사병을 퍼뜨리는데 대해 언급하고

## 이스라엘군의 람안만행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람안에 계속 광분하고있다. 9월 이스라엘은 가자지대의 북부알바다에서 4명의 팔레스티나인어부들이 람안에 대해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고 그들을 체포해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스라엘군의 이러한 만행은 현지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군 사수

#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현실

기업체 파산, 실업위기에 직면

에스파냐에서 7월에 채무위기의 후파로 1567개의 기업체들이 파산당하였다. 그중 건설, 무역부문의 기업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9월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에스파냐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위기가 격화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8월에 전국적인 실업자수가 그 전달에 비해 더 늘어나 442만 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무역적자 증대, 어린이들의 한심한 처지

영국에서 7월에 무역적자가 33억파운드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달보다 8억 파운드 더 많은것이라 한다. 9월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영국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자기들의 불우한 처지를 한

기업체 파산, 실업위기에 직면

에스파냐에서 7월에 채무위기의 후파로 1567개의 기업체들이 파산당하였다. 그중 건설, 무역부문의 기업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9월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에스파냐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위기가 격화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8월에 전국적인 실업자수가 그 전달에 비해 더 늘어나 442만 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무역적자 증대, 어린이들의 한심한 처지

영국에서 7월에 무역적자가 33억파운드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달보다 8억 파운드 더 많은것이라 한다. 9월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영국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자기들의 불우한 처지를 한

기업체 파산, 실업위기에 직면

에스파냐에서 7월에 채무위기의 후파로 1567개의 기업체들이 파산당하였다. 그중 건설, 무역부문의 기업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9월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에스파냐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위기가 격화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8월에 전국적인 실업자수가 그 전달에 비해 더 늘어나 442만 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무역적자 증대, 어린이들의 한심한 처지

영국에서 7월에 무역적자가 33억파운드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달보다 8억 파운드 더 많은것이라 한다. 9월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영국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자기들의 불우한 처지를 한

기업체 파산, 실업위기에 직면

에스파냐에서 7월에 채무위기의 후파로 1567개의 기업체들이 파산당하였다. 그중 건설, 무역부문의 기업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9월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에스파냐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위기가 격화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8월에 전국적인 실업자수가 그 전달에 비해 더 늘어나 442만 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무역적자 증대, 어린이들의 한심한 처지

영국에서 7월에 무역적자가 33억파운드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달보다 8억 파운드 더 많은것이라 한다. 9월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영국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자기들의 불우한 처지를 한

기업체 파산, 실업위기에 직면

에스파냐에서 7월에 채무위기의 후파로 1567개의 기업체들이 파산당하였다. 그중 건설, 무역부문의 기업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9월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에스파냐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위기가 격화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8월에 전국적인 실업자수가 그 전달에 비해 더 늘어나 442만 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무역적자 증대, 어린이들의 한심한 처지

영국에서 7월에 무역적자가 33억파운드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달보다 8억 파운드 더 많은것이라 한다. 9월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영국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자기들의 불우한 처지를 한

기업체 파산, 실업위기에 직면

에스파냐에서 7월에 채무위기의 후파로 1567개의 기업체들이 파산당하였다. 그중 건설, 무역부문의 기업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9월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에스파냐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위기가 격화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8월에 전국적인 실업자수가 그 전달에 비해 더 늘어나 442만 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무역적자 증대, 어린이들의 한심한 처지

영국에서 7월에 무역적자가 33억파운드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달보다 8억 파운드 더 많은것이라 한다. 9월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영국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자기들의 불우한 처지를 한

기업체 파산, 실업위기에 직면

에스파냐에서 7월에 채무위기의 후파로 1567개의 기업체들이 파산당하였다. 그중 건설, 무역부문의 기업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9월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에스파냐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위기가 격화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8월에 전국적인 실업자수가 그 전달에 비해 더 늘어나 442만 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무역적자 증대, 어린이들의 한심한 처지

영국에서 7월에 무역적자가 33억파운드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달보다 8억 파운드 더 많은것이라 한다. 9월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영국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자기들의 불우한 처지를 한

여러 나라에서 큰물피해

이탈리아의 부클리아지역에서 6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으며 살인범들이 물에 잠겨 주민들의 생애에 혼란이 조성되었다.

인디아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며칠째 지속된 무더기비로 인한 큰물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7일 정부는 큰물로 희생자가 사망자수가 16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살인범과 다리가 파괴되고 수백

여러 나라에서 큰물피해

이탈리아의 부클리아지역에서 6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으며 살인범들이 물에 잠겨 주민들의 생애에 혼란이 조성되었다.

인디아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며칠째 지속된 무더기비로 인한 큰물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7일 정부는 큰물로 희생자가 사망자수가 16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살인범과 다리가 파괴되고 수백

여러 나라에서 큰물피해

이탈리아의 부클리아지역에서 6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으며 살인범들이 물에 잠겨 주민들의 생애에 혼란이 조성되었다.

인디아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며칠째 지속된 무더기비로 인한 큰물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7일 정부는 큰물로 희생자가 사망자수가 16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살인범과 다리가 파괴되고 수백

여러 나라에서 큰물피해

이탈리아의 부클리아지역에서 6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으며 살인범들이 물에 잠겨 주민들의 생애에 혼란이 조성되었다.

인디아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며칠째 지속된 무더기비로 인한 큰물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7일 정부는 큰물로 희생자가 사망자수가 16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살인범과 다리가 파괴되고 수백

여러 나라에서 큰물피해

이탈리아의 부클리아지역에서 6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으며 살인범들이 물에 잠겨 주민들의 생애에 혼란이 조성되었다.

인디아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며칠째 지속된 무더기비로 인한 큰물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7일 정부는 큰물로 희생자가 사망자수가 16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살인범과 다리가 파괴되고 수백

여러 나라에서 큰물피해

이탈리아의 부클리아지역에서 6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으며 살인범들이 물에 잠겨 주민들의 생애에 혼란이 조성되었다.

인디아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며칠째 지속된 무더기비로 인한 큰물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7일 정부는 큰물로 희생자가 사망자수가 16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살인범과 다리가 파괴되고 수백

여러 나라에서 큰물피해

이탈리아의 부클리아지역에서 6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으며 살인범들이 물에 잠겨 주민들의 생애에 혼란이 조성되었다.

인디아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며칠째 지속된 무더기비로 인한 큰물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7일 정부는 큰물로 희생자가 사망자수가 16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살인범과 다리가 파괴되고 수백